지역 소식통

정읍시, 축사 화재 안전 시스템으로 농가 보호

정읍시가 축사 화재를 예방하고 대형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화재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은 전기 과열, 과부하 등 주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축사 내 전원, 온도 등 주요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는 올해 도비 등을 포함해 총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와 곤충 사육업 신고 농가를 대상으로 총 31곳의 농가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아크차단기 또는 자동 소화장치 중 한 품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농가는 최대 400만원의 설치비 중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51회 모양성제 주요부스 운영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제51회 고창모양성제'의 주요부스 운영자 모집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모양성제 기간(10월9~13일) 중 주요 프로그램(어린이 당근마켓, 소무대공연, 플리마켓 등) 운영자와 먹거리, 간식, 농특산품 판매 부스 운영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고창군은 올해 모양성제 슬로건을 '온고Z신, 옛것에 MZ를 얹다'로 정하고, 포스터 등을 확정했다.

반세기 모양성제의 전통 위에 새로운 세대의 감성을 더해 모양성 안과 밖에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어린이 당근마켓, 온고Z신 답성놀이, 소원등 달기 등 온라인 모집을 통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멍때리기 대회, 모양성 도화서, 모양철학관 등 이색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혁신 보건사업 추진하겠다"

고창군보건소, 3대 어르신 보건의료 · 저소득층 청소년 안경지원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비 지원 · 저출산극복 특화시책 시행 등

고창군보건소(소장 유병수)가 아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고창을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들어 고창군은 3대 어르신 보건의료 사업을 안착시키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의 3대 어르신 보건의료 사업(우리마을 주치의사제, '65세 이상 보건기관 진료비 무료,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을 주치의사제 도입 606개 경로당과 섬마을을 찾아 총 2만 4313명의 주민에게 기초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보건기관을 방문한 65세 이상 어르신 2만9526명에게 진료비 면제 혜택(총 5708만원)을 제공했다.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은 매년 2억 사업비로 현재 530명에게 시술을 지원하여, 수혜대상자의 저작불편 해소로 만족도는 99%에 달했다.

8월 1일부터 50세 이상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까진 50세 이상 군민 대상 유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다가 추후 대상포진에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군민 보건복지 확충' 차원에서 전면 무료화를 결정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최신식 디지털 방사선 골밀도 검사기가 도입됐다.

또한, 군 보건소는 저소득층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안경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학습능력을 높이고 있다.

C형간염 무료 선별검사를 통해 간암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올해 40세 이상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검사도 추진하고 있다.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비를 지원하고,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혈액검사 등 10종 30개 항목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에 대해 한의치매 예방치료 지원, 치매환자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해리분소 확대 운영으로 전문적인 치매관리와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체외수정 시술 횟수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 지원한다. 올해 4월부터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생애 한번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선정

신활력산단 200세대 주택공급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에 지역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위한 200세대의 주택이 들어선다. 특히 삼성전자 등 ESG기업유치에 이어 안정적 주거환경까지 마련되면서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신활력산단 완판분양'에 속도감을 더하게 됐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고수면 소재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총 200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인근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320억원 상당)를 지원받는다. 전용면적 36㎡ 100호, 56㎡ 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LH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는 교통인프라(고속도로 2곳 교차)와 문화복지(고수복합문화체육센터), 직주근접의 근로자 숙소를 갖춘 명품 첨단산단으로 도약하게 됐다.

실제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삼성전자 호남권 물류거점)는 근로자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을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통신소자형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인 (주)지텍의 경우에도 100명 이상의 고용이, 올리고당 등을 만드는 (주)에스비푸드도 70명의 신규 고용이 예정돼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공급'은 앞으로도 다수의 기업들이 고창으로 투자와 입주를 결정하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창신활력산단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가능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0세대의 주택공급은 고창군과 신활력산업단지가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지위원회 위촉식 개최

정읍시는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재선정·구성하고,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는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동 지역을 통합한 농지위원회 1개소와 읍·면별 농지위원회 15개소를 새롭게 설치해 운영해왔다.

그동안 농지위원회는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 심사대상의 농지취득 건에 대해 총 751건을 의결하고 141건을 부결시켰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재구성된 농지위원회는 총 160명으로, 각 농지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는 데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정읍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 기려

정읍시는 지난 15일 연지아트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박일 시의회 의장, 최용훈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제8098부대 황인형 대대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광복회원, 보훈가족을 비롯한 시민 240여명이 참석했다.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안광식 광복회 회장의 기념사, 이학수 시장의 경축사, 시의회 박일 의장의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학수 시장은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훈정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광복회 회원들은 "오늘날의 번영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나라를 잃었던 뼈아픈 과거를 되새기며, 이러한 시련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70건 사업 선정

정읍시는 지난 14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70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시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들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 선정되어 관리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의 다양한 현안 사항을 심의해 신규 25건과 계속 45건, 총 7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선정 사업으로는 △정읍천 핫플레이스(벽천분수) 조성사업 △치유의 숲 조성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설치사업 등이 포함됐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내년 비닐하우스 자재 지원사업 수요조사

부안군은 2025년 비닐하우스 자재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지원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비닐 및 자동개폐시설 교체, 시설감자 비닐하우스 파이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 도모에 도움이 돼 군민들의 사업 참여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군 전체 읍·면이며 신청 서류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으로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수요조사 후 2025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비닐하우스 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총사업비 2억 5200만원 규모로 전체 읍·면(위도면 제외)에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부안=김석진 기자